

백종일 전북은행장 '민생토론회' 참석

공공기관·지방은행의 금융거래 활성화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정부에 요청

JB금융그룹 전북은행 백종일 은행장이 전북지역의 벤처펀드 조성에 대한 협력 의지를 피력하며 공공기관과 지방은행의 금융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다.



지난 18일 정읍에 위치한 JB유름 캠퍼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하는 제27차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백 은행장은 "전북으로 이전한 공기업이 12개인데, 이들 기업의 지방경제, 지역 금융경제 참여도를 올려 경제 선순환에 정부가 힘을 보태 주기 바란다"며, "지역은행과의 금융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이 꼭 마련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북지역 벤처 펀드 조성에 대한 협력 의지를 전하며 "전북이 대규모 벤처 펀드를 조성 중인데 내년 1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에 따라 전북은행도 두 개 펀드에 공동참여 및 조성 중에 있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긴밀한 협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JB금융지주가 인수한 벤처캐피탈을 통해서도 지역 특화 벤처 스타트업 펀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

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한국 모태펀드나 산업은행과 같은 정부 산하 정책 출자기관들이 지역 투자와 출자에 더 힘을 보태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가 개최된 '유름 캠퍼스'는 JB금융그룹 통합연구소 원으로서 약 2만 평 부지에 지상 7층, 지하 1층 규모로 강의실과 다목적홀 등 교육 시설과 숙박 시설, 식당, 체육시설 등 주요 행사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급부상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만호 기자



건설업계가 전북 도내 수해 피해지역의 빠른 복구와 주민들의 안정적인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수해복구 성금 완주군에 전달

건협 전북자치도회, 피해지역 복구·안정적인 일상 회복 지원

건설업계가 전북 도내 수해 피해지역의 빠른 복구와 주민들의 안정적인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소재철)는 지난 23일 집중 호우 피해가 컸던 완주군에 수해 현장 복구와 구호활동 지원을 위해 수재의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소재철 회장은 "뜻하지 않게 수해를 입은 수재민들의 아픔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며 "수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이 현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생업에 복귀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

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어려운 건설업계 시장에도 불구하고 수재민 돕기에 앞장서 주셔서 감사하다"며 "신속한 피해 복구 작업을 통해 생활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2009년부터 매년 회원들의 정성을 모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성금을 기탁하고 있으며 금일 전달된 성금을 포함하면 총 기부 누적액은 4억7,500만원이 된다. /김옥기 기자



LX공간정보연구원, 베트남 고위공무원 초청 교육

베트남 5개 중앙직할시 중 하나인 하이퐁시의 고위공무원들이 대한민국 공간정보를 배우기 위해 LX공간정보연구원을 찾았다.

LX공간정보연구원(원장 곽희도)은 지방자치단체개발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베트남 하이퐁시 고위공무원 디지털 역량강화 과정의 일환으로 지난 23일 베트남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공간정보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교육에서는 공간정보연구원이 개발하고 있는 다양한 최신 공간정보 기술들과 민간협력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생태계 구축 방안들이 소개되었다.

제13대 도회장 단일 후보 추대 '회원사 통합 추대위' 발족

전건협 전북자치도회, 현임 임근홍 회장을 제13대 도회장 단일 후보로 추대

도내 3,300여 전문건설업체를 대표하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이하 협회)는 오는 10월 현 임근홍 회장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제13대 회장 선출을 준비하고 있다.

그간 협회는 선거를 치르는 동안 후보단립과 후보자들 간의 치열한 경선으로 선거가 과열되어 지역 건설업계



서 회원사의 화합과 결속을 도모하고 협회 발전을 위해서는 분열과 갈등을 유발하는 경선을 지양하고 단독 후보 추대가 필요하다"며, "전문건설업 보호구간을 2억원에서 4억3천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

과 협회 발전에 크게 기여해 온 현임 임근홍 회장의 연임을 적극 지지한다"고 표명했다.

전문건설업계는 2018년 11월 정부의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으로 2021년부터 2억원 이상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업자의 참여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수주물량이 급감하며 큰 위기를 맞게 되었고, 2024년 이후부터는 몇 천만원의 소액 전문공사까지도 종합건설업자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현실에

에게서는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해 왔지만 이미 방향을 정한 정책의 변화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20일 4억3,000만원 미만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이 국회 본회의를 극적으로 통과하며 전문건설업계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이 과정에서 평소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업자가 해야한다"는 신념으로 협회를 이끌어 온 임근홍 회장의 추진력과 리더십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회원사로부터 큰 신뢰를 받고 있다.

더불어, 어려운 건설경기와 냉혹한 경제 현실 극복을 위해서는 과거 범정 다름으로써 이어졌던 선거과정의 문제들을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여론을 바탕으로, 최근 두 번의 선거가 단독후보 추대로 치러지며 업계의 화합과 협력을 이끌어 냈다는 평가가 추대위원회의 뜻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옥기 기자

김경안 새만금청장, 김성진 코트라 외국인 투자유치부즈만 점견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24일 김성진 코트라 외국인 투자유치부즈만과의 점견에서 새만금 투자유치 성과를 소개하고 새만금에 입주한 외투기업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청장은 윤석열 정부의 지원 아래 IS그룹, 백광산업, 성일하이텍과 같은 이차전지 소재, 원료, 리사이클링 등 다양한 기업들의 투자로 10.2조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냈다고 소개했다. 이중 약 29%에 해당하는 3조 원은

외투기업의 투자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외투기업이 새만금 산업의 성장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했다.

김 청장은 "코트라 외국인 투자유치부즈만과 함께 새만금 국가(단) 내외투기업의 고충을 발굴하고 해결하면서, 외투기업이 새만금과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외투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24일 김성진 코트라 외국인 투자유치부즈만과의 점견에서 새만금 투자유치 성과를 소개하고, 새만금에 입주한 외투기업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바이오진흥원, 제3회 바이오지식포럼 개최

(제)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은 바이오 및 수출 관련기관, 기업관계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제3회 바이오지식포럼(문샷)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3회차를 맞이한 바이오지식포럼(문샷)은 전북자치도가 농생명·바이오 패권을 확보하고 바이오클러스터로 도약하기 위해 신속한 과학기술변화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시작되었으며, 문샷(Moonshot)은 1999년 미국의 달 착륙 프로젝트 '아폴로 계획'처럼 기존의 틀을 깨는 혁신적인 연구나 도전을 뜻하는 말로 지식포럼 개최의 근본 의미를 담은 표어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전남대학교 JS글로벌한상연구소원 이장섭 원장이 '아세안 식품유통 한상네트워크를 통한 발효식품 수출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미국, 아시아, 유럽 등 한인비즈니스 활

동내용을 소개하고 "우수발효식품의 글로벌 진출에 있어 세계한상네트워크 활용이 중요하다. 올해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와의 협력을 통해 많은 우수발효식품 발굴과 글로벌 진출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북자치도의 농식품 수출 촉진을 위해서는 한민족경제네트워크인 한상넷의 활성화와 재외동포청 운·오프라인 비즈니스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새만금국가산업단지의 바이오융합관련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미국, 중국, 동남아 세계한상네트워크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등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김옥기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